

# 마사회 농림부 환원과 과제



**김인식**  
본회 전무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마사회가 농림부로 이관된 것은 농축산업계에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0여년간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산물이요, 정치적 흑막속에서 잘못 이관된 역사적 왜곡현상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농축산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농축산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는 특별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2001년 1월 정부조직법이 개정공포됨으로써 한국마사회가 농림부로 환원되었다.

문화관광부 소속의 마사회가 농림부로 이관된 것은 행정부 내부에서는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이고 부처간 단순한 업무 관장권 이관일 수 있지만, 농축산업계에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0여년간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산물이요, 정치적 흑막속에서 잘못 이관된 역사적 왜곡현상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농축산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농축산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는 특별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동안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위한 긴 투쟁의 역사가 끝나게 되었다. 농축산업계 자존심과 직결된 마사회 농림부 환원이 실현되는 순간 다소의 허탈감이 없지도 않았다.

길고 지루했던 투쟁의 과정이 정작 실현되는 순간에는 너무도 조용하고 침묵하는 분위기 때문일까…?

물론 마사회가 환원되기 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숨은 공로가 있다. 가려져 있는 활동 노력을 평가하여 소개하고 박수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또 농축산업계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겨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마사회의 발전을 통해 경마가 사행심 조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씻는 과제 역시 남아 있다. 단순히 마사회 농림부 환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마사회 환원을 통해서 얻어진 농축산업계의 성과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집중해야 하는 과제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에 마사회 환원과 관련한 소개와 향후 과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본다.

## 정치상황에 대처해 환원 활동을 전개

5공시절 정치적 흑막속에서 마사회가 농림부 소관에서 체육청소

년부로 이관될 당시 비로소 마사회가 엄청난 돈줄이라는 것이 부각되게 되었다.

당시 여당 정치 실세였던 박철언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소문과 밀실에서 정치적 흑막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농업계에 충격을 던져 주었다. 그러나 농민단체 특히 축산단체의 활동이 그리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만큼 안타까움만 느낄뿐 감정이나 의사표현은 드러내지 못했다.

가장 큰 축산단체인 축협중앙회는 침묵을 지켰다. 축산단체라고 모임을 가져본들 우리협회를 비롯한 몇몇의 단체들에 불과하고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하였다.

마사회를 농림부에서 빼앗아 가겠다는 여당과 정치권에 대해 당시 농림부 신구범 축산국장의 항명파동이 뉴스로 이어져도 축산단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이에 우리 협회의 당시 김남용 전무(현 협회장) 중심으로 내부 숙의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힘을 결집하여 대응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우리협회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전국농민단체협의회를 통해 강력한 반대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축산업계의 단합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래서 결성된 것이 <한국마사회 이관 저지 투쟁위원회(마투위)>이다. 우리 협회와 종축·양돈·양계·양육·양봉협회 그리고 전국농민단체협의회로 구성되었다.

마투위에서는 이관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거부운동을 전개하는데 주력해 왔다. 비록 몇 안되는 단체이고 별로 기대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지만 나름대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저항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다. 전문지의 협조를 얻어 적극 보도함으로써 농축산인에게 제대로 이해하도록 애를 썼다.

이를 위해 적은 금액이지만 회비를 받고 모금을 하기도 하였다. 축산단체의 단결도모는 물론 축산인과 단체와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리후렛 제작 배포, 성명발표, 정당과 국회의원 등에게 항의문 보내기를 전개하는가 하면 축산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서명에 서울우유조합원과 부산우유조합원 전원이 동참하였고 전국 낙농가와 축산인의 공감을 형성하는 주요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매번의 협회 정기총회에 결의문으로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로 채택할 수 있었다. 마투위는 신구범 당시 축산국장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농축산업을 위해 일하는 소신있는 공무원에게 용기를 던져주는 역할도 할 수 있었다.

마투위가 마추위로 그리고 다시 마투위로 명칭을 바꾸어가면서 추진한 활동역사는 추후 별도 보고서로 남기기 위해 현재 작업중에 있다.

이에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마투위 중심으로 요약정리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